

연합회

환경학과 학생 초청 간담회



본연합회는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역할증대로 인한 환경학도들의 자세와 인식을 공고히 하고 그 진로를 모색해 보는 진로의 장을 마련, 지난 9월 29일 영등포소재 영화호텔에서 환경관련학과 학생대표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40여명의 학생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본연합회가 실시하고 있는 학생대표의 예비회원제도, 즉「환경학과 전공 학도들의 환경보전의 기여도와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졸업후 같고 닳은 역량을 한껏 발휘하여 국가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배 환경의 입장에서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는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실시된 것이다.

한편 동행사는 본연합회 장준영회장의 「선·후배 환경인이 목소리를 함께 하여 국가환경보전의 첨병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개회사로 시작, 박창근 본회고문이자 UNEP 글로벌 500위원의 「환경문제와 환경인들의 역할」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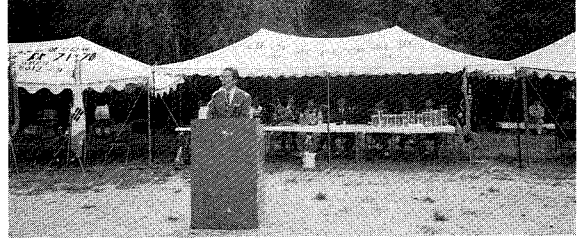
계속하여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 환경관련학과 학생의 전국적인 협의회 구성 ▲ 연합회 차원에서 학생대상 심포지엄개최 ▲ 일반인 대상의 환경홍보강화 등을 안건으로 채택, ▲ 본연합회에서는 전국환경학과 학생협의회 구성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그외의 안은 검토 등의 결론을 내렸다.

‘환경관리인’ 개칭안 확정

본연합회가 배출시설관리인 법적명칭 개칭 2천명 서명운동을 실시한 결과 최근 환경처는 「환경관리인」으로 법적명칭을 개칭한다는 안을 채택,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전·충남협의회

제6회 환경인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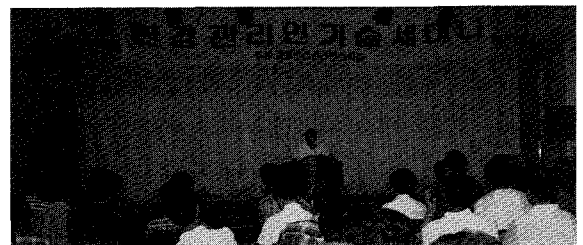


대전·충남협의회(회장·김수형)는 지역 환경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향후 환경보전업무의 발전을 꾀하고자 지난 9월 25일 신탄진 대청댐 잔디구장에서 제6회 대전·충남환경인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대전·충남거주 환경관계인 1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루어진 동행사는 본연합회 장준영회장의 보다 단합된 환경인의 한마당 잔치가 되자는 축사와 함께 족구, 배구, 줄다리기 등 5개 종목별 시합이 있었다.

강원협의회

제3회 기술세미나



강원협의회(회장·권영준)는 금년 8월 8일 자로 개정, 강화된 환경관계법을 중심으로 지난 9월 4일 원주 소재 밝음신협 회의실에서 「제3회 기술세미나 및 환경관계 법규 해설 교육」을 실시하였다.

환경관계인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동행사에는 본연합회 장준영 회장의 축사와 강원도청 환경보호과 이윤식 사무관의 「법 개정에 따른 인·허가 업무 개편 방향 및 법해설 교육」 등의 강의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